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Survey of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조성연(Songyon Cho)[1)]
신혜영(Hae Young Shin)[2)]
최미숙(Mi Sook Choi)[3)]
최혜영(Hye Young Choi)[4)]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by gender and grade and by attendance in after-school program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Participants were 3,608 children in Korean provincial areas except Jeju-do; they responded to the Happiness Scal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 and t-test. Results were (1) children's happiness level was high; girls' happiness level was higher than boys'. As they moved up in school grade, happiness level decreased. (2) Their attendance in after-school program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decreased their happiness level in leisure and extra academic activity, but it increased happiness in school/community life and sibling relations. Conclusions were that reduction in the amount of children's after-school programming would increase children's happiness.

Key Words : 행복감(happiness), 초등학교 아동(elementary school children), 방과후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

---

* 본 논문은 2008년도 한국아동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2) 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3)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4)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Corresponding author : Mi Sook Choi,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city 500-757, Korea
E-mail : mschoi@chonnam.ac.kr

I. 서 론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과 가족, 사회는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성취지향적인 생활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최고가 되기 위해 어린 시기부터 경쟁적인 환경에서 성장, 발달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적인 삶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영유아들과 초등학교 아동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넓혀진지 오래다. 그에 따라 학령기가 미래의 경쟁사회를 대비하는 준비기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은 학교 수업 외에 수많은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과 방과 후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으로써 누려야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에 의하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무색하게 아동으로써 즐길 수 있는 개인적인 생활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박수진(2001)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4.23가지의 특기・적성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9가지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도 4.5%에 달하였다. 이외에도 안지영(2003), 우남희・현은자와 이종희(1993), 이기숙・장영희・정미라와 홍용희(2002) 등은 매우 어린 연령의 영아들조차 특기・적성교육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아동들은 어려서부터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적인 삶을 사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등학교 아동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의 각종 방과 후 활동을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과거 삶의 질이나 행복은 객관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대수준 등에 따른 주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Seligman과 Csikszentmihalyi(2000)가 주창한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점차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사회가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해갈수록, 풍요로운 물질적인 환경을 누릴수록 사람들은 삶의 질이나 행복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Kahneman 등(2006)은 평균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시의 경험에 대해 더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결과(김창대, 2007, 재인용),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여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Diener(2004)의 결과(서은국, 2007, 재인용)와 Inglehart(2004)의 82개국 대상의 주관적 안녕감 순위에 대한 세계보고서(SBS, 2006, 재인용) 등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면서 긍정심리학이나 행복 혹은 개인의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오픈 소사이어티가 20대부터 50대까지의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14.4%가 매우 행복하고, 75.6%가 행복한 편이라고 답함으로써 90.0%가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성(15.6%)이 여성(5.2%)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성(82.8%)이 남성(75.8%)보다 상대적인 행복감이 더 컸다(김행, 2002). 이 결과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는 가정화목(45.5%)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건강(30.9%), 긍정적 사고(9.2%), 친구 및 대인관계(3.7%), 종교생활 (3.1%), 재산(2.8%), 자녀교육 및 미래(2.2%), 취미생활(1.7%), 사회적 성공(0.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성공이 행복순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하게 SBS와 한국갤럽(2006)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도는 1995년 88%에서 2005년 74%로 14%나 감소하였지만 화목한 가정(99.4%)이 행복의 제 1조건이었고, 사회적 지위(76.2%)는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2000)의 조사결과에서 가족을 이루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수준이 20%이상 더 높았다(SBS, 2006, 재인용). 이와 같이 행복이나 삶의 질에 대한 조사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아동의 권리신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외에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희중, 2007; 신명덕, 2007; 이정화, 2005; 천윤희, 2005; Furnham & Cheng, 2004; Holder & Coleman, 2008; Park & Peterson, 2006).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신명덕(2007)의 연구결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형제와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행복감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행복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한 수준이 더 낮아졌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한 김연화(2007)와 김희중(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천윤희(2005)의 연구결과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과 후 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아동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개 초등학교 1,496명(제주도 제외)을 대상으로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잡지사(2008)의 설문조사 결과,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는 48%에 그쳤고, 38.9%의 아이들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했으며, 13.1%가 '불행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수업 외의 활동에 대해 80%의 아이들이 한 곳 이상의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평균 세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세 시간 넘게 학원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도 40%에 달했다. 함께 있으면 가장 즐거운 사람으로 가장 많은 39.4%가 친구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40.3%), 돈이 많아야(24.6%)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며(70.9%), 성적이 좋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것(11%)이라고 답하였다(한겨레, 2008. 11. 28). 이러한 결과는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즉, 초등학생들 가운데 61.4%가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고, 3.4%는 개인과외를 이용

한다고 답함으로써 64.8%의 초등학생들이 학원과 과외 등 별도의 사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더 두드러져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는 1～3학년의 저학년은 55.6%인 반면, 4～6학년의 고학년은 66.2%였고, 개인 과외도 각각 3.1%, 3.6%로 고학년 비율이 더 높았다(조선일보, 2007. 11. 27). 이는 2002년도 조사에서 4명중 3명이 학원을 다녔던 것과 유사하다(한길뉴스, 2002. 12. 4). 한편, 이러한 결과는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최근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즉, 서울, 도쿄, 베이징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SBS 8시 뉴스, 2007. 5. 29)에 따르면 학교가 끝난 뒤 1시간 이상 과외학습을 받는 비율이 서울 78.1%, 도쿄는 58.2%, 베이징 56.4%로 서울이 가장 높았고, 3시간 이상 과외를 받는 비율도 서울 38.4%로 도쿄나 베이징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따라 실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서울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였지만, 베이징은 밤 9시부터 9시 반 사이, 도쿄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2006)의 '2005년 전국 가족실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생은 1주일에 평균 11시간12분을 학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 2006. 3. 3). 이와 관련하여 중고등학생 대상의 행복지수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실시한 OECD(2007) 자료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지수는 178개국 중 102위를 기록함으로써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김신영(2007)이 전국의 중・고등학생 5,951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살펴본 결과, 100점 만점에 53.08점(중학생 55.77점, 고등학생 51.35점)으로 낮았으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감의 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상당수의 초등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인해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서 삶의 질이 매우 낮고, 행복감도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원 등의 다양한 학교수업 외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초등학생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에 의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능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원하지 않는 다양한 학교 수업 외 활동에의 참여는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도 있어 초등학생들의 행복감 수준을 낮추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낮은 행복감 수준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먼 장래의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감 수준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초등학생 대상의 행복감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필요성 및 의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하위요인별 수준은 어떠한가?

2-1. 자신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2-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2-3.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초등학교 아

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2-4. 과외 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2-5. 학교 및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2-6. 여가활동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중활동 유무와 주말활동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지역 등 전국 6개 지역의 서울의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있는 국공립초등학교 1-6학년이었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가능한 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에서 2개 초등학교를 유의표집하였고, 선정된 초등학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608)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지역	서울	659(18.3)	학년	1학년	489(13.6)
	경기도	618(17.1)		2학년	591(16.4)
	강원도	591(16.4)		3학년	550(15.2)
	충청도	592(16.4)		4학년	662(18.3)
	경상도	539(14.9)		5학년	616(17.1)
	전라도	609(16.9)		6학년	700(19.4)
성	남	1,838(50.9)	외동 여부	외동	357(9.9)
	여	1,770(49.1)		외동 외	3,164(87.7)
부모 동거	부모	3,303(92.3)	출생 순위	첫째	1,535(43.6)
	부만	75(2.1)		둘째	1,525(43.3)
	모만	133(3.7)		셋째	373(10.6)
	친척	67(1.9)		넷째 이상	88(2.5)
부 연령	30세 이하	29(1.0)	모 연령	30세 이하	66(2.3)
	31-35세	128(4.5)		31-35세	360(12.7)
	36-40세	881(31.1)		36-40세	1,424(50.3)
	41-45세	1,247(44.0)		41-45세	777(27.4)
	46-50세	442(15.6)		46-50세	176(6.2)
	51세 이상	105(3.7)		51세 이상	29(1.0)
부 직업	전문직	497(18.9)	모 직업	전문직	342(12.0)
	사무・관리・행정직	1,013(38.5)		사무・관리・행정직	330(11.6)
	자영업	573(21.8)		자영업	383(13.4)
	비숙련직・서비스직	489(18.6)		비숙련직・서비스직	462(16.2)
	농・어・임업	19(0.7)		농・어・임업	10(0.4)
	무직	40(1.5)		전업주부	1328(46.5)
주중 활동	참여	3,337(92.5)	주말 활동	참여	783(21.7)
	비참여	271(7.5)		비참여	2,825(78.3)

교에서는 학년별로 2개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하였다. 그러나 강원도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추가로 2개 학교를 더 선정함으로써 최종 선정된 학급수는 총 146개이며, 총 4,320명을 표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 행복감 척도에서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었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제외시킴으로써 최종 연구대상은 3,608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 학년, 성에 따라 연구대상 아동이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 표집된 아동은 대부분 형제・자매가 있었으며(87.7%), 부모와 동거(92.3%)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부모 모두 36～45세가 가장 많았고, 부모의 직업유형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관리・행정직(38.5%)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업주부(46.5%)가 가장 많았다. 주중(월～금요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92.5%)이 학원이나 과외, 방과 후 학습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말(토～일요일)에는 21.7%의 아동들이 과외나 개인레슨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2. 아동의 행복감 척도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들(이정화, 2005;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의 32문항으로 구성한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척도(Elementary School Children's Happiness Scale)"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점수범위는 32～128점이다. 본 척도에서의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들 자신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행복한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제작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자아개념(9문항), 과외활동(5문항), 부모와의 관계(6문항), 여가활동(5문항), 형제・자매관계(2문항), 학교・지역사회생활(5문항)의 6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긍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의 모습이나 건강, 기분 등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로부터의 인정 등을 의미하고, '과외활동'은 방과후의 학원이나 개인교습, 과외 등 학업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어머니, 아버지와의 만족스런 관계와 현재 사는 집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여가활동'은 일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놀이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며, '학교・지역사회생활'은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교사와의 관계 및 이웃사람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α가 .89였고, 하위요인별로는 .61～.80이었다. 또한 현재 행복한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행복 1, 행복하지 않음 2로 코딩)과 행복감척도 간에 지역을 통제하여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행복감 총점(r=-.34, p<.001)과 모든 하위요인들(r=-.15～-.31, p<.001)과 유의한 부적상관계수를 산출함으로써 본 척도가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개발한 척도에 대해 서울, 경상, 전라도에서 2, 4, 6학년 각 40명씩 120명을 선정하여 일주일 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응답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을 삭제,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그 후 수정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3주일에 걸쳐 표집한 전국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조연구자들이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수업 중 질문지를 실시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및 *t* 검증을 하였으며,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를 위해서는 요인분석과 부분상관계수를, 신뢰도를 위해서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행복감 총점과 하위요인별 분석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을 성과 학년에 따라 행복감 총점과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전체 행복감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가장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고, 이후 계속 꾸준히 감소하여 6학년이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1학년은 매우 행복한 반면, 6학년은 행복하지 않

<표 2> 학년별, 성별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총점과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3,608)

			긍정적 자아개념 (M/SD)	부모와의 관계 (M/SD)	형제·자매 관계 (M/SD)	과외활동 (M/SD)	학교·지역 사회생활 (M/SD)	여가활동 (M/SD)	전체 (M/SD)
학년	1	남(*n*=251)	30.79(4.77)	21.57(3.19)	5.85(1.87)	13.90(3.78)	17.56(2.70)	14.84(3.52)	104.79(13.24)
		여(*n*=238)	31.84(3.81)	22.02(2.33)	6.02(1.86)	14.31(3.71)	18.65(1.69)	15.36(3.20)	108.11(10.71)
		계(*n*=489)	31.30(4.36)	21.79(2.81)	5.93(1.86)	14.10(3.75)	18.09(2.32)	15.09(3.39)	106.41(12.17)
	2	남(*n*=313)	29.57(4.52)	21.73(2.86)	5.80(2.05)	13.53(3.70)	17.44(2.85)	13.90(3.43)	101.78(13.07)
		여(*n*=278)	30.34(3.92)	22.26(2.39)	6.04(1.74)	14.27(3.75)	18.24(2.17)	14.17(3.33)	105.36(11.64)
		계(*n*=591)	29.93(4.26)	21.98(2.66)	5.92(1.91)	13.87(3.74)	17.82(2.58)	14.03(3.38)	103.49(12.53)
	3	남(*n*=264)	27.80(4.92)	21.04(3.24)	5.70(1.95)	12.66(3.67)	16.49(3.13)	13.11(3.59)	96.82(14.32)
		여(*n*=286)	29.27(4.28)	21.87(2.69)	5.98(1.72)	14.48(3.35)	18.03(2.30)	13.88(3.42)	103.65(12.75)
		계(*n*=550)	28.56(4.66)	21.47(3.01)	5.85(1.83)	13.60(3.62)	17.29(2.84)	13.51(3.52)	100.36(13.94)
	4	남(*n*=327)	27.83(4.86)	21.01(3.24)	5.46(1.86)	12.20(3.45)	16.40(3.20)	13.03(3.48)	95.77(14.13)
		여(*n*=335)	28.31(4.32)	21.78(2.76)	5.95(1.67)	12.66(3.53)	17.50(2.75)	13.64(3.31)	99.82(13.16)
		계(*n*=662)	28.07(4.60)	21.40(3.03)	5.71(1.78)	12.43(3.50)	16.96(3.03)	13.34(3.40)	97.81(13.79)
	5	남(*n*=305)	26.98(4.88)	21.07(3.25)	5.65(1.84)	11.94(3.38)	16.10(3.17)	12.46(3.14)	94.08(13.85)
		여(*n*=311)	28.95(4.21)	21.68(3.07)	5.99(1.60)	13.43(3.34)	17.42(2.70)	13.41(3.10)	100.77(13.14)
		계(*n*=616)	27.98(4.66)	21.38(3.17)	5.82(1.73)	12.69(3.44)	16.77(3.01)	12.94(3.16)	97.44(13.89)
	6	남(*n*=378)	26.39(4.71)	20.31(3.47)	5.57(1.78)	12.16(3.52)	15.40(3.09)	12.69(3.36)	92.62(14.02)
		여(*n*=322)	27.00(4.89)	20.47(3.66)	5.72(1.69)	12.30(3.23)	16.13(3.09)	12.82(3.36)	94.30(14.82)
		계(*n*=700)	26.67(4.80)	20.39(3.56)	5.64(1.74)	12.23(3.39)	15.73(3.11)	12.75(3.36)	93.40(14.41)
전체		남(*n*=1838)	28.09(4.99)	21.08(3.26)	5.66(1.89)	12.67(3.64)	16.49(3.13)	13.27(3.50)	97.24(14.40)
		여(*n*=1770)	29.13(4.52)	21.65(2.94)	5.94(1.71)	13.50(3.58)	17.59(2.65)	13.81(3.37)	101.59(13.59)
		계(*n*=3608)	28.60(4.80)	21.36(3.12)	5.80(1.81)	13.08(3.63)	17.03(2.96)	13.53(3.45)	99.38(14.17)

은 편이었다. 학년별로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하위요인들과 총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더 높았다. 특히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어 저학년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고학년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성에 따른 행복감 수준은 3학년에서 가장 컸으며, 전체적으로 1학년 여학생이 가장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낸 반면, 6학년 남학생이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2) 행복감 하위요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하위요인에 대한 수준은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 대체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지역사회생활에서는 비교적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1)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행복감 수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은 자신과 관련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더 높았고, 그 수준에 있어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행복감 수준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행복감 수준이 낮아져 6학년의 경우에는 행복감 수준의 평균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1학년과 2학년만 전체 행복감 평균보다 높았고, 그 이상의 학년에서는 평균 이하의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2)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행복감 수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매우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전 학년에 걸쳐 비교적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 학년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산출됨으로서 초등학교 아동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고르게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2학년이 가장 높았고,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행복감 수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은 성별과 학년별로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형제・자매관계에 대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4학년에서 낮아졌다가 5학년에 다시 높아지지만 6학년에 가서는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4학년의 낮은 수준은 남학생에서 비롯되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4) 과외 활동에 대한 행복감 수준

과외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6개 행복감의 하위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증가하면서 행복감 수준이 낮아졌으나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과외활동으로 인한 행복감 수준이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5학년에서 약간 상승한 후 다시 6학년이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5학년 남학생은 전 학년에서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5) 학교・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행복감 수준

학교・지역사회생활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가장 높고, 6학년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요인에서의 행복감 수준은 고학년과 저학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저학년은 전체 평균의 행복감 수준보다 높았지만 고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5학년과 6학년 사이에서 현저한 감소가 나타남으로써 6학년이 학교생활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떨어졌다.

(6) 여가활동에 대한 행복감 수준

여가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평균보다 낮게 산출됨으로써 남

<표 3> 주중・주말활동 참여유무별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차이검증 (N=3,608)

구분	행복감	유무	*M*	*SD*	*t*
주중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3337) 무(*n*=271)	28.63 28.25	4.73 5.51	1.26
	부모와의 관계	유(*n*=3337) 무(*n*=271)	21.38 21.04	3.10 3.34	1.62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3337) 무(*n*=271)	5.81 5.73	1.79 1.99	.70
	과외 활동	유(*n*=3337) 무(*n*=271)	13.08 13.04	3.65 3.39	.17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3337) 무(*n*=271)	17.08 16.51	2.91 3.43	3.01**
	여가활동	유(*n*=3337) 무(*n*=271)	13.48 14.14	3.45 3.38	-3.08**
	행복감 총점	유(*n*=3337) 무(*n*=271)	99.44 98.71	14.12 17.79	.77
주말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783) 무(*n*=2825)	28.57 28.61	4.69 4.82	-.23
	부모와의 관계	유(*n*=783) 무(*n*=2825)	21.27 21.38	3.24 3.08	-.91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783) 무(*n*=2825)	5.92 5.77	1.78 1.81	2.11*
	과외 활동	유(*n*=783) 무(*n*=2825)	12.80 13.15	3.62 3.63	-2.37*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783) 무(*n*=2825)	17.03 17.04	2.87 2.98	-.08
	여가활동	유(*n*=783) 무(*n*=2825)	13.08 13.66	3.49 3.42	-4.20***
	행복감 총점	유(*n*=783) 무(*n*=2825)	98.67 99.57	14.42 14.10	-1.53

*p<.05 **p<.01 ***p<.001

녀 모두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서만 평균 정도의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고, 나머지 학년은 모두 평균 이하의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2. 주중·주말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차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의 총점과 하위요인이 주중활동 유무와 주말활동 유무에

<표 4> 남학생의 주중·주말활동 참여유무별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차이검증 (N=1,838)

구분	행복감	유무	*M*	*SD*	*t*
주중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1678) 무(*n*=160)	28.10 27.94	4.94 5.53	.37
	부모와의 관계	유(*n*=1678) 무(*n*=160)	21.09 20.99	3.24 3.38	.37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1678) 무(*n*=160)	5.66 5.63	1.87 2.06	.20
	과외 활동	유(*n*=1678) 무(*n*=160)	12.67 12.67	3.66 3.53	.01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1678) 무(*n*=160)	16.52 16.19	3.08 3.59	1.14
	여가활동	유(*n*=1678) 무(*n*=160)	13.21 13.92	3.50 3.43	-2.45*
	행복감 총점	유(*n*=1678) 무(*n*=160)	97.23 97.29	14.37 14.83	-.04
주말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1678) 무(*n*=160)	28.15 28.07	4.85 5.04	.29
	부모와의 관계	유(*n*=1678) 무(*n*=160)	20.98 21.11	3.31 3.24	-.72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1678) 무(*n*=160)	5.73 5.64	1.82 1.91	.78
	과외 활동	유(*n*=1678) 무(*n*=160)	12.32 12.78	3.51 3.68	-2.27**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1678) 무(*n*=160)	16.57 16.47	2.99 3.17	.62
	여가활동	유(*n*=1678) 무(*n*=160)	12.77 13.42	3.48 3.49	-3.35***
	행복감 총점	유(*n*=1678) 무(*n*=160)	96.65 97.41	14.20 14.46	-.93

*p<.05 **p<.01 ***p<.001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은 92.5%가 주중에 각종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주말에도 21.7%의 아동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중 활동의 참여는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학교・지역사회 생활'과 '여가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학교・지역사회 생활'은 주중 각종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 반면, '여가활동'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더 행복한

<표 5> 여학생의 주중・주말활동 참여유무별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차이검증 (N=1,770)

구분	행복감	유무	*M*	*SD*	*t*
주중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1159) 무(*n*=111)	29.16 28.69	4.45 5.48	.88
	부모와의 관계	유(*n*=1159) 무(*n*= 111)	21.68 21.13	2.91 3.29	1.93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1159) 무(*n*= 111)	5.95 5.86	1.69 1.90	.47
	과외 활동	유(*n*=1159) 무(*n*=111)	13.49 13.58	3.60 3.11	-.28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1159) 무(*n*=111)	17.63 16.98	2.62 3.14	2.14*
	여가활동	유(*n*=1159) 무(*n*=111)	13.76 14.47	3.37 3.30	-2.14*
	행복감 총점	유(*n*=1159) 무(*n*=111)	101.65 100.73	13.52 14.55	.68
주말 활동 참여 유무	긍정적 자아개념	유(*n*=1159) 무(*n*=111)	29.05 29.16	4.46 4.54	-.41
	부모와의 관계	유(*n*=1159) 무(*n*=111)	21.60 21.66	3.13 2.89	-.31
	형제・자매와의 관계	유(*n*=1159) 무(*n*=111)	6.15 5.89	1.70 1.70	2.53*
	과외 활동	유(*n*=1159) 무(*n*=111)	13.37 13.53	3.66 3.55	-.78
	학교・지역사회생활	유(*n*=1159) 무(*n*=111)	17.55 17.60	2.62 2.66	-.36
	여가활동	유(*n*=1159) 무(*n*=111)	13.43 13.90	3.48 3.33	-2.39*
	행복감 총점	유(*n*=1159) 무(*n*=111)	100.99 101.75	14.34 13.39	-.91

*p<.05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말 활동에의 참여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행복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주말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의 행복감 수준이 더 낮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약간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남학생과 여학생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중활동 참여 유무는 '여가활동'에서만, 주말활동 참여 유무는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주중과 주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여가활동과 과외활동으로 인한 행복감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중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라 '학교・지역사회생활'과 '여가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말활동의 참여 유무에 따라서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여가생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여가활동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더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에서는 더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여가활동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더 높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인한 행복감 수준은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아동을 표집하여 그들의 행복감 수준이 어떠한지와 주중과 주말활동에의 참여유무에 따라 행복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출된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지역사회생활에서 비교적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낸 반면, 숙제와 학원 등과 관련한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의 행복감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한 잡지사(2008)의 조사결과인 48%의 초등학생들만이 행복하다고 했던 결과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도 지수가 100점 만점에 53.08점으로서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낸다는 김신영(2007)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 오픈 소사이어티(2002)의 결과, 즉 한국인의 90%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다고 했던 잡지사(2008)의 조사결과 및 행복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가정화목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오픈 소사이어티(2002)와 SBS와 한국갤럽(2006)의 조사와는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말과 주중에 다양한 학교 수업 외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적고 학교와 학원 등의 숙제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를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학원 등의 기타 활동영역에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

을 나타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더 높게 산출되었던 김연화(2005)와 김희중(2007)의 연구결과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 수준이 감소하였던 신명덕(2007)의 연구결과와는 같은 결과이며, 성인대상의 연구결과인 오픈 소사이어티(2002)의 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행복도 지수가 더 낮았던 김신영(2007)의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결과에서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들이 더 많은 학원과 교습소를 다니고 개인과외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와 2007년의 3개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과외를 받는 비율과 수면시간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더 많은 과외학습을 받고 그로 인해 수면시간도 더 부족했던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등학교에서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종류의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과외를 받게 됨으로써 해야 할 숙제도 많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긍정적 자아개념,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지역사회 생활을 제외한 형제・자매와의 관계,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 6학년은 모두 비교적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외활동은 가장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6학년은 학원이나 학교 숙제 등으로 인해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행복감의 하위요인 중 여가활동은 1학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많은 학원이나 과외 등의 방과후 활동과 그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기지 못함으로써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조사결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행복감 수준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들이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로 인해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스트레스와 부담을 더 많이 받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면접과 조사를 통해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일찍부터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한 선행학습에 몰두하도록 하기 보다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아동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들은 주중과 주말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동들(92.5%)이 활동에 참여하였고, 주말에도 21.7%라는 높은 비율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학교 수업 외의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의 낮은 행복감 수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은 주중과 주말에 다양한 학교 수업 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친구들이나 부모, 혹은 형제・자매와 놀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행복감 수준도 그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점은 주중에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아동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대체로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와 지역

사회생활에서는 주중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아동들은 학원 등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게 됨에 따라 그것을 더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에서는 주중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더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여유 있는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 주중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아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행복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똑같이 나타났다. 한편, 주말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복감 수준이 더 낮았는데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의 행복감 수준이 참여하는 아동들에 비해 더 높았다. 그러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주말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아동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특징적인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주말에 형제・자매가 함께 집에 있음으로써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서로 다툴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이것이 행복감 수준을 더 높이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제쌍, 자매쌍, 형제・자매쌍, 자매・형제쌍으로 나누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성차가 있어서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주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 더 높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주말활동에의 참여가 아동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쳐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주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에 비해 여가활동에서의 행복감 수준은 더 높았지만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더 낮은 행복감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형제・자매쌍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수준은 매우 높다. 하위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고,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의 행복감 수준이 가장 낮다. 둘째, 주중활동과 주말활동에의 참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의 과외활동과 여가활동에서의 행복감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주중활동에의 참여는 학교・지역사회생활을, 주말활동에의 참여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의 중소도시 지역에 있는 중류층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표집하여 연구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제주도와 대도시를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감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이라는 것의 정의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통해 보다 타당도가 높은 행복감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곽혜정(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문화와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명소・김혜원・한영석・임지영(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2), 1-33.

김신영(2007). 2007 한국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연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김연화(2007).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주희(2004).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만족도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창대(2007). 왜 행복인가? : 불행의 심리학에서 행복의 심리학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엄 : 행복의 재발견, 16-31.

김 행(2002. 1). 김행의 월례 여론조사 : 한국인의 행복관. http : //monthly.chosun.com(월간조선)에서 2008년 12월 30일 인출.

김희중(2007). 긍정심리와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류광식(2002).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은국(2007). 우리사회 행복의 현주소 :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엄 : 행복의 재발견, 43-50.

신득렬(2000). 행복과 교육. 교육철학, 18, 191-208.

신명덕(2007).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우진희(2007).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 :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원진욱(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유형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정화(2005). 초등학생의 행복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조선일보(2007. 11. 27). 초등학생 셋중 둘, 학원・개인과외 이용. http : //www.chosun.com/cp/edaily/200711/27/20071127000198.html에서 2008년 5월 18일 인출.

천윤희(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겨레(2008. 11. 28). 요즘 초등학생들 얼마나 행복할까. http : //www.hani.co.kr/arti/culture/book/324678.html에서 2008년 12월 12일 인출.

한국일보(2006. 3. 3). 부부 절반이상이 “돈 때문에 싸운다” 2005 한국 가족의 모습은? 여성부, 조사결과 발표. http : //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3/h2006030218004821950.htm에서 2008년 12월 18일 인출.

한길뉴스(2002. 12. 4). 초등생 4명중 3명 학원 다녀. http : //hgnet.co.kr/print.php?no=780에서 2008년 12월 12일 인출.

황명진・심수진(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Furnham, A., & Cheng, H.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Holder, M. D., & Coleman, B. (2008). The contribution of temperament, popularity, and physical appearance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2), 279-302.

OECD(2007). Measuring a better future : Happiness in the Korean context. http : //www.oecd.org에서 2008년 7월 15일 인출.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3), 323-341.

SBS (2006). 제 4차 미래 한국 리포트 :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http : //future.sbs.co.kr/data_4.html 에서 2008년 12월 30일 인출.

SBS 8시 뉴스 (2008. 5. 29). 학원 때문에 바쁜 "한국 초등학생은 괴로워". http : //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63010&category=N1&section=03에서 2008년 12월 12일 인출.

Seligman, M.,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2월 25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